

배스킨라빈스, 무인 매장 플로우 2호점 도곡 오픈

SPC 배스킨라빈스가 3일 서울 도곡동에 24시간 무인 매장 플로우 2호점을 오픈했다. 비대면 소비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미래형 매장이자, 최첨단 IoT(사물인터넷) 무인 솔루션, 지능형 폐쇄회로 CCTV, 스마트 음성인식 비상벨, 스마트 감지기 등을 설치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모든 제품에 20%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핑크아일랜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년 첫 주식 거래일에 사상 최대 횡령사건 터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충격'

횡령규모, 자기자본 대비 91.81% 해당 직원, 자금담당자 특성 악용 회사돈으로 투자하다 손해...잠적 관계자 '계좌 동결해 회수할 계획' 주식 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도



신년 첫 거래일부터 주식시장에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담당 직원이 188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식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본 뒤 잠적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규모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81%에 달해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피해다.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코스닥 우량주에서 발생한 횡령인데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가 2만 명에 달해 사건의 파장이 엄청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한 뒤 착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담당자의 특수성을 악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 첫 주식거래일에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란 대형 악재가 터져 휘청거렸다. 사진은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뉴스시스

용해 단독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통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령 사건이 터지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매매 등 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횡령 소식이 알려진 직후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목게시판에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상장기업에서 어떻게 일개 직원이 1900억을 인출하나", "코스닥 초우량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기가 찰 노릇"

이라고 비난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상장 폐지 가능성 제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지각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이나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상장지각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상장지각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 적격인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다시 재개된다. 통상 사건의 경중이나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

에 따라 거래중단기간이 결정된다.

만약 상장지각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42~57거래일 동안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3월 감사보고서에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오스템임플란트로서는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내부관리와 감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동진세미켐 지분을 대량 매입해 화제가 됐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추측이 퍼지고 있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10월 당시 동진세미켐 주식을 평균 매입단가 3만6492원, 총 1430억 원에 사들여 '파주 슈퍼개미'라는 별칭이 붙으며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파주 슈퍼개미'와 횡령 직원의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같으며 동일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한 공시 이외에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제의 인물은 당시 사들인 주식을 11~12월 사이에 평균단가 3만4000여 원에 매각해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주항공, 국내선 누적탑승객 5000만 돌파

제주항공이 3일 국내선 누적탑승객 5000만 명을 돌파(사진)했다. 2006년 6월 5일 취항해 15년7개월 만이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 총인구(2020년 12월말 기준 5182만9136명) 수 만큼의 누적탑승객수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선 누적탑승객 5000만 명은 국적 LCC(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누적탑승객 5000만 명 중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등 제주기점 노선에서 4735여만 명이 탑승해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수송분담률도 지난해에 이어 19.5%의 점유율로 2년 연속 국내선 수송객 1위를 지켰다. 한편, 제주항공은 국내선 5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9일 오후 5시까지 항공권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KT&G,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작품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국내 창작 뮤지컬 지원 프로그램인 '제5회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참여 작품을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는 국내 창작 뮤지컬 발굴과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4개의 작품이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를 통해 공연을 마쳤다. 작년 최종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메리켄디'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했다.

공모 접수는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필수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3월 8일에 발표되며, 공연 제작비 1000만 원과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공연장 및 무대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AI·자율주행·로보틱스...정의선 회장, 미래사업 솔루션 제시

(현대차그룹)

'친환경 튜터 브랜드' 기반 다지고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에 총력 자율주행 시범 주행 등 사업 구체화



현대차그룹이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오른쪽 사진)의 라이브 스테이션 무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일 현대차그룹이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 메시지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고객과 인류를 최우선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고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고객이 신뢰하는 '친환경 튜터 브랜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확보해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사업 영역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동화 체제 전환 및 미래 사업 구체화

현대차그룹 전동화 상품의 핵심인 모터, 배터리, 첨단소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생산-판매-고객관리의 전 영역에서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 EV6, GV60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올해는 아이오닉 6, GV70 전동화모델, 니로 EV, EV6 고성능 모델을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첨단 상품의 경쟁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우수인재가 있는 곳에 AI 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방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된 레벨4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3년 양산 예정인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도 시범 주행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 라이드(RoboRide)',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Shuckle)'과 결합한 로보셔틀(RoboShuttle)의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연계된 이동의 편의 경험을 제공한다.

로보틱스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지난해 그룹 일

원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올해 서비스 로봇인 스폿(Spot)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어 물류 로봇 '스트레치(Stretch)'를 시장에 선보이며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UAM 상용화 계획도 명확히 했다. 정 회장은 "이동의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UAM은 2028년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UAM 법인명을 '슈퍼널(Supernal)'로 확정하고, 안전한 기체 개발과 UAM 상용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기능코성형, 기능성·심미성 고려해야

숙련된 전문의의 진단 후 개인별 맞춤 수술 진행

코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성형 수요가 많은 신체 부위 중 하나다. 최근에는 코의 기능적 문제 치료와 심미적 모양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코성형 사례가 늘고 있다.

기능코성형이란 코막힘의 원인을 제거해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고수술이나 매부리코성형 등 심미적인 부분까지 개선하는 코수술을 말한다. 비염, 비종격 만곡증, 비밸브 협착증 등이 대표적인 기능 코 성형 대상이다.

비종격만곡증은 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비종격이 휘어져 외관상으로 코가 휘어져 보이고 비염이나 축농증, 코골이 등의 코질환을 유발한다. 비밸브 협착증은 호흡을 조절하는 비밸브가 무너지거나 좁아져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이다.

기능코성형은 종합적으로 진단 후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 코 성형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코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하면 비염이 재발하거나 코 내부 염증, 부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밀 진단장비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숙련된 전문의 계획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비인후과적 수술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코성형은 일부 항목에서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강남 연세코앤이비인후과 **송정환** 원장